



카니누와 말로 '생명의 양식'
이라는 뜻입니다. (요 6:48)

박요섭, 조선향 동역서신

한 마음 한 뜻

One in Spirit and Purpose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빌 2:2)

함께 ... 주님과 함께 ...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것이 낫다’ 하실 분들도 있겠지요?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늘 목상하게 되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개정개역)라는 말씀은 이곳 생활에서는 실재(實在)입니다. 거의 모든 일이 ‘두 사람’ 이상이 해야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 번역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기에 반드시 팀이 필요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5주 동안 현지인 번역자 훈련 과정인 TTC(Translator’s Training Course)가 진행되었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태프들도, 학생들을 돕는 멘토들도, 참가한 학생들도, 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사들도 모두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하며 ‘함께’했기에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더 나아가 우리들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TTC에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함의 중요성을 새삼 더욱 깨달았습니다.



TTC에는 모두 4개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인 TTC1에서는 번역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과 사전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배우는 학습방법(Study Skills), 여러 언어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문법을 통해 알아보는 언어발견(Language Discovery), 성경번역의 단계들을 하나씩 배워가며 실제 성경번역을 해보는 번역원리(Translation Principles), 정확한 번역을 위해 성경의 배경 지식을 배우는 성경배경(Bible Background) 등 4과목을 배웁니다. 이번에는 화, 금 저녁에 있었던 성경공부 시간에 성막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카니누와 팀에서는 속테스, 잭, 레비, 실베스터가 참석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름 책상에 앉아 강의를 듣는 데 익숙한 저희들에게도 쉽지 않았기에, 마을에서 밭 농사짓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훈련 받으러 온 카니누와 번역자들에게는 이 훈련과정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첫 주에 강의 들으랴 숙제 하랴 졸린 눈 비벼 가며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속테스는 잭, 레비, 실베스터를 돕는 멘토 역할을 감당했는데 본인도 공부하면서 도와야 했기에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TTC1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과제로 내준 성경번역을 끝내야만 다음 과정인 TTC2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룯기와 에스터를 번역하기로 했는데 마을에서 잘 진행이 되어 내년 7-8월에 진행되는 TTC2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카룸바 본부로 올라갑니다. 2달 정도 머물면서 사역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고, 공부하고, 마을 점검이 끝난 구역 일부 말씀을(열왕기상~) 계속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9월말에는 문법 워크샵에 참석하는데 이번 워크샵을 통해 카니누와 문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희 번역팀을 더 잘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마을에서 녹음한 마가복음, 사도행전, 요나서 말씀들을 잘 다듬어서 오디오바이블(AudiBibl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더 절실하기에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주님보다 일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4316 - 10 St. NE Calgary, AB T2E 6K3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후원문의
 한국(GBT): 031) 421-5324
 income@v2025.or.kr
 북미: kroffice_canada@wycliffe.ca

기도해 주세요

1. 계속되는 이동 가운데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속테스, 잭, 레비, 실베스터는 주말에(8/27-28) 트럭과 땡기(소형 모터보트)로 마을에 갑니다. 저희는 8/31에 우까룸빠로,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알로타우를 거쳐 마을로 경비행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2. 9-10월 마을에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일부(292절) 번역한 말씀을 가지고 마을 점검을 진행합니다. 번역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을 사람들과 말씀을 읽을 때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11월 18일에 있을 카니누와 미니성경 봉헌식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봉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4. 내년 초 자문위원 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사무엘하 일부(526절) 말씀을 점검 받기를 원하는데 자문위원이 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올해는 저희 단체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을 시작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TTC 학생들과 함께 이곳 알로타우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번역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 곳곳에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말씀을 사랑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리고 관심과 기도,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함께'해야 할 때라고,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함께'하자고 교회 공동체에 전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를 외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소식 나눠 주세요. 기쁜 소식도, 마음 아픈 소식도 함께 나누며 기도로 만나길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8월 26일

파푸아뉴기니 국가 회개의 날
(National Day of Repentance)

박요섭 조선향 드림



저희 파푸아뉴기니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jj.park@sil.org.pg

카톡 ID: kaninuwa2011

전화번호: (675) 7269-0186, 7265-9198

우편주소: Joseph & Joyce Park
c/o SIL Alotau Centre
PO Box 30, Alotau, MBP 211
Papua New Guinea